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국제정치질서의 변화

신연재
정치외교학과

(요 약)

이 연구는 사회주의권 특히 소련 및 동구권의 개혁이 사회주의국제관계 및 일반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집권을 계기로 가속화된 구사회주의권의 개혁이 본래 사회주의로부터의 이탈이 아닌 개량을 목표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제정치질서의 재편에 미친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주의권의 개혁은 국제적 상호의존 관계의 가치를 재인식한 바탕 위에서 추구된 것이었으나 그 결과가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이어지자, 그것은 사회주의권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축소시키면서 2차대전 이후의 냉전체제를 이완시키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결과 미국만이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음은 걸프전을 통하여 입증된 것이러니와 또한 그것은 국제정치질서의 재구조화 방향과 관련하여 중대한 함의를 내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도 냉전체제의 이완으로 말미암은 군사력의 효용 감소와 제반 국내문제로 말미암아 국제정치적 역할이 제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력의 하강 추세 또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권의 개혁 이후 국제정치질서는 당분간 一極下多極體制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유럽의 통합, 일본의 정치강대국화, 중국의 독자노선이 구체화되면 다극화의 방향으로 점차 재구조화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Reform in the Socialist Countries and Its Influence upon the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Yun-Jai Shin
Dept. of Political Science

* 이 연구는 1989년도 교육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과제의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the reform in the former socialist countries, especially in the case of Soviet Union and East European countries, and the transformation of global political order. The reform policy in itself initiated by Gorbachev did not aims at deviation from socialism, but reformation of it. Nevertheless, its influence upon the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is much considerable. As the policy relying on the positive revaluation of international interdependence has brought about dissolution of socialist systems, their power upon international relations was immediately declined. In result, we can see the re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from bipolar system to multipolar one. Reform of the some former socialist countries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e destruction of international Cold War order.

1. 문제의 제기

19세기 후반에 대두된 사회주의는 1917년의 러시아혁명을 계기로 국제정치의 단위로서 체제화되었거니와, 20세기 중엽 이후로는 자본주의와 함께 국제정치질서를 구성하고 그 주도권을 다투는 세력으로 성장해 왔다. 이러한 사회주의체제는 1980년대 중엽 이후 각종 한계와 요구가 분출되면서 일대 변혁과 개방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변화동향에 비추어 보아야만, 이와 같은 변화가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것임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그 파급 효과가 사회주의체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귀착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대답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시각에서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그 전제로 요구된다. 그런데 운동과 사상의 면에서 세계의 말단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인 19세기와는 달리,¹⁾ 최근까지 사회주의는 국제정치질서의 운영을 주도하는 양대 세력중의 하나로 기능해 왔다. 국제정치구조의 변화가 이렇고 보면, 사회주의권의 변화는 당연히 국제정치질서 전반의 재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것이 북한에까지 미칠 영향에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모순, 개혁의 성격과 형태 및 방향 그리고 그 한계를 분석하는 작업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서 분단 상황으로 말미암아 국제정치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한국이 안고 있는 한, 그러한 작업을 토대로 사회주의권의 개혁이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에 미친 또는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서 국제정치질서의 변화가 사회주의권의 변혁에 영향을 가져다 주는 상호작용 과정의 분석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주의권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맹아기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

1) George Lichtheim, *Marxism : An Historical and Critical Study* (New York : Praeger, 1961), pp.222-233.

정이다. 소련 및 東歐 사회주의권의 변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최근에 이르러서도, 현실의 필요에 대응한 정책적 차원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뿐, 연구의 체계화에 동반되어야 할 조직적·전문적 연구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물론 소련 및 동구권에 관한 기초연구가 이처럼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게 된 데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한국의 발전 단계 및 국제정치적 위상을 반영하여 우리에게 동구는 지리적인 거리 이상으로 심리적인 거리가 더 먼 존재로 상징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구에 관한 연구를 자극할 만한 현실적 필요성이 거의 제기되지 않았었다.²⁾ 더우기 2차대전 이후 한반도를 지배해 온 냉전의식은 소련과 동구를 하나의 통합체로 인식하도록 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여, 이들 각각의 내부는 물론 이들간의 상호관계에 존재하는 제반 역동들에 대한 인식을 저해해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동향에 주목하여, 사회주의권의 개혁정책이 동구 및 세계 질서에 미친 영향, 즉 소련 및 동구권의 개혁이 사회주의국제관계 및 한반도국제정치질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려는 시도의 일부이다.

2. 소련의 개혁과 사회주의권 국제정치질서의 변화

사회주의적 국제관계의 성립은 19세기 말엽 서구 공산당들간의 관계로까지 그 기원이 소급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관계가 국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라면, 성숙된 형태의 사회주의적 국제관계는 2차대전 말기에 형성된 동구의 신생 사회주의국가들이 소련과 수립한 관계에서 비롯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회주의적 국제관계가 당·인민·국가간의 교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인민간 및 당간의 관계는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간의 관계는 동구 사회주의권의 성립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2차대전 이후에야 정상궤도에 진입한 사회주의적 국제관계는 마르크스·레닌주의(Marxism-Leninism)의 이데올로기를 공통의 저변으로 하여, 사회주의의 자본주의에 대한 우월과 전자에 의한 후자의 대체를 강조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국가간의 특수한 형제 관계를 강조하면서 사회주의국가간 국제관계의 통합과 조화를 합리화하는 <사회주의국제주의>(socialist internationalism)에 입각한 것이다. 사회주의국제주의에 의거한 사회주의권의 국제정치질서는 여러 면에서 자본주의의 그것과는 대조를 이루는데,³⁾ 우선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요소로서 이념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념이 국제선전의 주요 도구로 운용된 단초는 고대의 정복 활동으로부터 찾아지지만, 그리고 사상 최초로 이념이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이용된 것은 나폴레옹에 의해서 였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이념투쟁이 시작된 것은 제국주의 시대였다고 사회주의자들은 파악한다.⁴⁾ 이렇듯 헬레니즘 시대의 지배세력, 나폴레옹, 윌슨, 나치 등에 의하여 이념이 국제관계에 도입되었으나, 그것은 주로 도그마와 동일시되어 왔다. 반면 국가마다 세계관과 이익이 상이함을 노정해 온 서방과는 달리, 공통의 이념이 국제관계 조화의 유일 요소라고 간주하는 사회주의권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합을 유지하는 데 이념-Marxism-Leninism-의 역할을 중시한다.

국제관계는 공산당의 주요 관심 영역중의 하나여서 당은 외교정책을 규정하고 정부는 그것

2) 김달중 외, 「동구 정치·경제·사회론」(박영사, 1985), pp.1-2.

3) Robert H. McNeal (ed.), *International Relations Among Communists*(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67), pp.2-5.

4) Georgi A. Arbatov, *The War of Ideas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Moscow : Progress, 1973), pp.17-20.

을 집행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 즉, 정부가 통상적 외교를 담당하되 당은 국제관계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사회주의국가의 집권공산당과 비사회주의국가의 집권공산당 및 비집권공산당간의 관계를 매개로 공산당이 국제관계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주의권 국제정치질서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특색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국제관계사는 사실상 소련과 여타 사회주의국가간의 관계로 환원될 수 있을 정도로 소련의 지배적 위치가 두드러진다. 소련이 2차대전 이후 미국과 더불어 세계질서의 운영을 주도해 온 초강대국이고, 동구와의 관계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투사해 왔으며, 여타 사회주의 국가 또는 당이 소련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온 것인 한, 소련의 사회주의권에 대한 압도적 영향력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리하여 <형제적 국제주의>(fraternal internationalism)에 입각하여 사회주의국가들의 통합을 추구한 코민테른과 코메콘을 소련이 지배한 것이나 스탈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공산당들이 소련을 추종한 것 등은 그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스탈린의 사망 이후 사회주의권 국제관계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의 요인들이 발현되면서, 각각 사회주의권의 통일성과 다원성을 추구한 소련과 여타 사회주의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분열상이 노출된다.⁵⁾ 기왕의 우월성을 이념적 결속으로 유지하려는 소련 그리고 독자적 국가이익과 역사적 발전 과정을 근거로 주권의 존중을 요구한 사회주의국가들간의 대립은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역사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냉전체제는 1948년 이후 소련이 동구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유고만을 제외한 채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성취케 한 계기로 작용한다. 그러나 스탈린의 사망 이후 다원화의 요구와 불안정의 변수가 제기되고, 이러한 변화는 헝거리 및 폴란드의 항거로 구체화된다. 동구 사회주의권의 분열 추세에 대한 소련의 대응은 흐루시초프가 사회주의의 모델이 하나 이상이 될 수도 있음을, 그리하여 다원성을 묵인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⁶⁾ 이 결과 사회주의적 국제관계의 다원화 기반이 일시적으로나마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1980년대 후엽 이후 동구권의 개혁 정책에 논리적 기반으로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흐루시초프체제가 점차 안정성을 확보해 나아가자 소련은 바르샤바조약기구와 코메콘(CMEA)을 통하여 다시 동구의 예속을 강화하는 정책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1960년대 초엽 이후 격화된 중·소분쟁은 사회주의권 전체는 물론 소련·동구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분열을 초래하고 소련과 동구간의 결속을 잠식하게 된다. 중소분쟁의 여파가 동구에 침투한 결과, 예컨대 알바니아는 친중국 노선을 추구하고 기왕의 유고슬라비아를 쫓아 루마니아까지도 독자노선을 걷게 된 것이다.

사회주의국가간의 관계를 세계적으로 통합하고 규율하는 국제적 기제가 결여되고 다원성과 통일성을 둘러싼 공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탈소독자노선을 선언함으로써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의 결속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었던 사건이 소위 <프라하의 봄> 즉 체코슬로바키아 사태였다. 그것은 동구 각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내적인 면에서는 공산당의 일당 통치에 대한 도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면에서는 사회주의적 국제관계에서 소련의 우월성 내지 패권을 부인한 사건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동구 각국의 개체화 요구 그리고 데탕트 및 중소분쟁의 가속화를 기반으로 다원화 경향을 극대화한 체코 사태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

5) McNeal, *op.cit.*, p.169.

6) Karen Dawisha & Jonathan Valdez, "Socialist Internationalism in Eastern Europe," *Problems of Communism*, Vol.36, No.2, p.9.

하여 동구의 통합을 유지해 왔던 소련의 무력간섭을 초래한다. 소련의 무력간섭은 이른바 <제한주권론> 또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에 이론적 근거를 둔 것으로서 그것의 실천적 함의는 동구권의 변화를 힘으로 제약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모든 공산당은 자신의 인민은 물론 모든 사회주의국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 각 사회주의국가의 주권은 세계사회주의와 세계혁명운동의 이익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⁷⁾ 그리하여 형제적 국제주의보다는 강력에 의존하여 동구의 다기화를 억제하되 통일성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소련·동구 관계의 재정립을 시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⁸⁾ 그런데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사회주의국제주의>의 함의를 가장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즉 사회주의국제주의는 체코 침공 사태 이후 전통적으로 소련의 정책과 그 사회주의 모델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스탈린 사후 다양한 형태로 대두된 내적 개혁 요인과 국제정치환경간의 상호작용으로 말미암아, 동구권의 다기화 추세는 사회주의권 내부의 관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지속적 역동으로 작용했음도 또한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동구 제국의 외교정책이 자율성을 보유했느냐의 여부와 사회주의권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요인으로서 사회주의국제주의가 보편성을 갖느냐의 여부에 관해서는 논자마다 평가가 다르다. 즉, 동구 제국의 외교정책은 소련의 장기적 정책의 관점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부재하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반면 스탈린 이후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상대적 자율성을 보유했다는 평가가 대립해 왔다.⁹⁾ 동구·소련 관계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강대국·약소국 관계, 경제적 지배·종속 관계와 상호의존성, 그리고 이념의 공통성은¹⁰⁾ 동구의 자율성을 제약하기에 충분한 증거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념의 역할, 영토분쟁, 경제교류의 성격, 기술·전략의 차이, 그리고 국내정책과 외교정책의 상충 등의 문제는,¹¹⁾ 사회주의 국제관계의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 요인으로 기능해 왔음도 부인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범주와의 관련하에 세계관의 성격을 규정짓는 이념적 도구로서, 사회주의권 국제관계이론의 개념틀로 작용해 왔다고 파악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국력이나 국가이익을 전면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소련의 체코 침공 사태, 사회주의국가간의 영토분쟁, 경제 관계의 불평등성 등의 경험에서 확인된다. 영토분쟁의 경우 소련의 폴란드 영토 합병 문제는 소련이 그 대가로

7) 사회주의국제주의의 적용 여부, 범위와 그 타당성에 관해서는 소련과 동구 관계의 변화에 따라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국제주의 개념은 무산자국제주의(proletarian internationalism)를 변형한 것으로서, 후자는 비집권공산당간의 관계를 주로 지칭하나 집권공산당간의 관계에도, 전자는 근자에 제기되어 주로 사회주의국가간의 관계에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양자는 혼용되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Dawisha & Valdez, *art.cit.*, p.1 참조.

8) Nish Jamgotch Jr., "Alliance Management in Eastern Europe," *World Politics*, Vol. 27, No.3 (April 1975), pp.412-415.

9) Hannes Adomeit & Robert Boardman, "The Comparative Study of Communist Foreign Policy," in Hannes Adomeit & Robert Boardman (eds.), *Foreign Policy Making in Communist Countries : A Comparative Approach* (New York : Praeger, 1972), pp.4-5.

10) Peter L. Berger, *Pyramids of Sacrifice* (Garden City, New York : Anchor Books, 1976), ch.3 ; Zvi Gitelman, "Toward a Comparative Foreign Policy of Eastern Europe," in Peter J. Potichniy & Jane P. Shapiro (eds.), *From the Cold War to Detente* (New York : Praeger, 1976), pp.159-160.

11) 소련과 동구 및 기타 사회주의국가들 사이의 갈등 요인에 관해서는 McNeal, *op.cit.*, pp. 27-40 참조.

독일의 희생하에 오데르·나이세 유역을 폴란드에 보상함으로써 은폐된 것일 뿐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게다가 특정 지역의 귀속을 둘러싼 불화가 중소분쟁 및 중월분쟁의 한 요인이었으며, 민족자결권-또는 민족주의-의 요구와 관련된 소련내 소수민족과 중앙정부와의 갈등도 결국 영토 문제로 귀결된다는 지적은, 사회주의권이 영토분쟁을 해결할 효율적 기제를 창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일 뿐더러, 나아가서 이들간의 관계에서 영토분쟁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그 요인은 다양하게 잠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 관계의 경우에도 사회주의권은 상호 평등과 원조의 기반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나 실재는 이와 상반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시설의 탈취, 과대 보상 요구, 합작회사를 통한 재산 접수 등의 방법으로 소련이 2차대전 이후 다수의 사회주의국가 창설 초기에 경제 관계의 평등 및 우애의 기반을 파괴한 것은, 이들간의 국제관계에서 국가이익의 조화보다는 오히려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자본주의국가간의 특히 빈부국가간의 관계에도 이러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사회주의국가간의 관계에도 그러한 현상이 존재하고 또한 이들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도 분명하다. 한편 전술 및 전략 문제에서도 사회주의 각국은 상위를 드러내는데, 이들간의 <형제> 관념이 <적>에 대한 보편적 행동지침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인식은 타당하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권 내부에서도 제국주의에 대한 적대의 정도와 민족해방투쟁에 관한 시각의 차이가 있어, 소련·동구간의 갈등과 중소분쟁을 초래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특정 국가의 국내정책이 여타 국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은 국제관계사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제관계에 통합된 상태로부터 이탈하려는 국가를 상대로 그 국내정책에 간섭하는 행위는, 사회주의자들도 인정하는 국제관계의 주요 구성원리-국내문제 불간섭, 주권 존중, 주권 평등, 영토 보전의 승인 등-에¹²⁾ 배치되는 것인데도, 체코 침공 사태를 우애의 관념으로 정당화하려는 모순이 소련으로부터 노정된다. 따라서 국제관계의 갈등을 야기할 국내정책을 간파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국제관계의 안정성을 스스로 위협하는 자기 모순이 사회주의국가간의 관계에 내면화되기 마련이었다.

통합의 요인에 못지 않게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 요인에 비추어 보면, 소련의 압도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각국의 상대적 자율성이 존재하며 사회주의국제주의의 획일적 적용에도 한계가 있음은 불문이고, 사회주의권의 다기화 추세가 온존되어 왔음을 수증할 수밖에 없다. 이것에 더하여 2차대전 이후의 소련이 미국과 함께 초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세계적 국지적 변화를 주도하고 또 그것에 민감하게 대응했던 결과, 미소관계의 변화는 사회주의국가들의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주요 변수였다. 바꾸어 말하자면 미소관계의 개선은 동구 제국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러나 그것의 악화는 소련의 압력과 통제를 가중시켜 소련의 세력권에 동구를 더욱 편입시키는 상반된 결과를 빚어냈음을, 1980년대 초까지의 경험이 입증한다.¹³⁾ 즉, 미소간의 <냉전>은 동구권 국제관계의 획일성을 강화하는 데 일조했으나, 1970년대의 <대탕트>-SALT I 조인(1972), 헬싱키협정(1975) 등-는 서구와의 교류 증대를 통하여 동구의 경제성장을 가속화시켰었다. 역으로 1980년대 초 미국의 힘의 우위 정책과 소련의

12) 크라신, "전인류적 가치와 계급투쟁," 보고볼로프 외, 「사회주의 대개혁의 논리」(풀빛, 1990), p. 277.

13) Robert L. Hutchings, *Soviet-East European Relations : Consolidation and Conflict, 1956-1980* (Madison :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3), pp. 7-12.

팽창주의와의 침예한 대립에서 결과된 <신냉전>은 폴란드의 <자유노조운동>과 맞물려 미소간의 군축회담을 지연시켰고, 또한 동서관계의 일시적 경색과 호네커의 서독 방문 연기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는 일이었다.¹⁴⁾ 그러므로 동구사회주의권의 다기화 경향은 소련의 정책 수정, 미소관계의 동향을 축으로 한 일반국제정치질서의 변화, 그리고 동구의 자주화 노선 추구가 복합된 상태에서 전개된 것이라고 파악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동구권 국제관계에서 1980년대 중엽은 고르바초프로 상징되는 개방·개혁 정책이 동구권의 자율화를 적극 촉구함으로써, 그리하여 이전과는 달리 소련 스스로 동구권의 다기화를 자극한 중요 전기였다. 강력을 기반으로 동구권 국제관계를 규율했던 사회주의국제주의의 약화는 그 당연한 귀결로서, 1985년 4월 새로운 기초 위에서 진영 내부의 관계 재정립 필요를 제기한 고르바초프의 언명은 이러한 변화를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 즉, 그가 바르샤바조약의 갱신 과정에서 동구권과 사회주의진영의 중대한 변화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문제 해결과 위기 회피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한 것만을 놓고 보면 기존정책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각 인민의 발전 형태 및 경로 선택권을 존중하는 국제관행에 대하여 무조건적 지지를 표명한 것은, 획일적 통합 및 위계제를 강요해 온 기왕의 사회주의국제주의에 근본적 수정을 가한 것으로 여겨진다.¹⁵⁾ 그런데 고르바초프에 의한 정책의 전환은 과거 동구와의 관계에서 빚어진 각종 오류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소산이긴 했으나, 동시에 소련의 국가이익 관념을 재정립하여 증진시키려는 신사고의 발로이기도 했다. 그의 개방·개혁 정책이 소련사회의 문제 인식, 실패의 인정, 기존 제도의 비판을 수단으로 체제의 실상을 노출시켜 경제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지적은¹⁶⁾ 그러한 이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그의 신정책이 낮은 기대치의 합리화, 국제환경의 탈위협적 재해석, 목표의 하향 조정을 핵심 구성부분으로 한 <하향화의 외교>(diplomacy of decline)로 환원된다는 해석은 일면 수긍할 만한 것이다.¹⁷⁾

여기서 당면 과제로 부각된 것이 소련의 정치 경제 운영 방식의 개선과 세계관의 변화였는데, 양자는 소련의 대내외 정책에서 이념이 담당해 온 역할과 관련되는 문제였다. 소련의 정치경제가 사회주의 이념에 의존하여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배층의 국제정치가관인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우·적>을 구분하고 위협의 정도를 평가하며 상대적 진보성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이념이 소련의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 결과 이념과 현실의 괴리가 효과적 외교정책의 결정을 저해하고 이념적 차이에의 주목은 소련의 국가이익에 손상을 초래했다는 인식이, 고르바초프에게 사회주의 이념의 제약으로부터 대내외정책을 해방시키는 계기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그에게 대립적·호전적·공격적 정책을 요구하는 이념은 국익의 장애물일 뿐이어서 타국에 대한 이념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는 것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게 된다. 그리하여 동서관계에서 이념이 차지하는 적실성을 부정하고, 그 제1보로 서구의 소련에 대한 공포감을 제거하는 행동에 착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련은 초강대국간 협조체제의 구축과 유럽에서의 데탕트 분위기 조성을 요구받게 되어, 그

14) 안병준, "미소관계와 동구," 『동구 정치·경제, 사회론』, pp.169-170.

15) Dawisha & Valdez, *art.cit.*, p.3.

16) Mikhail Gorbachev, "Principles of Restructuring : Revolutionary Nature of Thinking," (Pravda, April 5, 1988) in Sylvia Woodby, *Gorbachev and the Decline of Ideology in Soviet Foreign Policy* (Boulder, Colorado : Westview Press, 1989), pp.96-99.

17) Woodby, *op.cit.*, p.56.

수단으로 동구권의 비자발적 결속의 근간이었던 사회주의국제주의를 이완시키고 소련을 사회주의의 유일한 모델로 강조하던 획일성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점은 사회주의국제관계의 약화에 수반된 동구권의 다기화가 소련의 새로운 국가이익 정립과 증진 필요의 산물임을 입증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소련사회의 개혁이 여타 사회주의국가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더라도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소련측의 전망이¹⁸⁾ 현실적 근거와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소련의 개방·개혁 노선이 사회주의의 가치를 유지할 목적으로, 왜곡되지 않은 본래의 원형 사회주의 이념에 준거하여 사회경제의 모순을 비판하고 수정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착취의 제거보다는 생활 수준의 향상과 생산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실용적으로 재정립한 것이라면,¹⁹⁾ 이로부터 불가피하게 도출된 것이 개혁론과 반개혁론의 대립이었다. 그러한 노선의 수정이 실용주의자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었으나, 이념의 일관성을 사회의 질서 및 정당성과 결부시켰던 기득권층에게는 타격을 입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하여 공산당 중앙위의 보수파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제기되자, 소련과 동구권 각각의 개혁은 물론 양자 관계의 성격 재정립이 가속력을 잃게 된다. 새로운 사회의 건설과 수호를 승인하되 진영내 관계의 기초는 여전히 상호원조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사회주의국제주의의 잔존을 강력히 시사한 27차 당대회 강령은 개혁 노선이 국내외에 걸쳐 신중한 방향으로 선회했음을 확인하는 데 유효하다. 더군다나 소련의 개혁 요구에 대한 동구의 대응 또한 미온적이거나 점진적인 것이어서 소련의 동구정책은 일정 기간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 동구권의 반응은 대체로 정치와 경제 면에서의 개혁은 거부하되 과학기술혁명을 중심으로 경제의 개선을 추구하고, 국제관계의 면에서는 사회주의국제주의의 존속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담긴 의미를 재해석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²⁰⁾

그리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거나 강요되는 사회주의의 모델이나 그것으로의 이행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부터,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보편적 법칙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소련 것만은 아닌 모든 형제국가의 총체적 경험에 토대를 둔 것이라는 주장이 도출되어 대세를 이루게 된다. 결국 사회주의국제주의의 타당성을 둘러싼 소련 지배층의 분열 및 새로운 사회주의국제관계상의 미정립이, 탈소·탈통합 노선과 교차되어 동구는 상대적 자율성의 범주를 확대할 수 있었다.²¹⁾ 동구가 다중심주의의 틀 위에서 각자의 국가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

18) Y. A. Krasin, *Restructuring and Problems of The Theory of Socialism*(Moscow :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1989), pp. 28-29.

19) Mikhail Gorbachev, "Speech to Kiev Workers," (Krasnaia Zvezda, February 24, 1989) in Woodby, *op.cit.*, pp.115-117

20) Matyas Szuros, "Promoting Unity," *World Marxist Review*, No.4 (April 1986), pp. 31-39 : 그러나 소련과 일정한 거리를 계속 유지했던 루마니아는 사회주의국제주의의 기원은 브레즈네프 시대가 아니라, 소련중심적인 코민테른이 일원적 국제통합(monolithic international unity)을 강요한 1920-1930년대이며 이것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파악한다. 이 바탕 위에서 사회주의국제주의가, 소련을 지지하는 공산당을 지배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특정 모델을 강요하는 일원적 통합의 도구라고 비판한다. 소련과의 관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루마니아는 이후 소련이 주도하는 개혁에 대해서도 동구권 국가중 가장 부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 Dawisha & Valdez, *art. cit.*, pp.4-11 참조.

21) Roger E. Kanet, "Research on East European Foreign Policy," Ronald H. Lindon (ed.), *The Foreign Policies of East Europe* (New York : Praeger, 1980), p.314.

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소련의 정책에 순응하게 된 것도 이러한 변화의 결과였다고 여겨진다.

한편 소련·동구의 개혁을 서구 및 일본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중국은 자못 부정적이다. 따라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의 급속한 변화가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부정적이었던 것이 천안문 사태의 폭력 진압으로 확인된다. 소련 및 동구권이 개혁 과정에서 중공과의 유대 회복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중국이 그것에 응한 동인은 서구와 일본에 대한 경제 기술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고 또 서방으로부터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파악된다.²²⁾ 그러므로 다시 소련 진영에 급속히 편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나아가서 동서간 세력균형의 변화를 이용할 필요에 의해서도, 중국은 소련 진영으로부터 쇄도하는 개혁의 여파를 회피할 근거를 갖추고 있었다. 이렇듯 소련의 개혁은 소련 자신은 물론 사회주의권 전반에 변화를 가져와, 진영 관리와 동맹 관계의 핵심 기제였던 사회주의국제주의의 쇠퇴를 동반한다. 그리하여 소련과의 관계에서 약소국의 입장을 감수해야 했던 여타 사회주의국가들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제고된 반면, 강대국 소련의 정책통제력이 약화되어 사회주의권의 다기화가 촉진되었던 것은 그 불가피한 결과였다고 이해된다.

3.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일반국제정치질서의 변화

고르바초프가 주도한 소련의 개혁 정책이 정치와 경제의 실패를 객관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의 운영 방식을 전반적으로 재편하고, 과거의 방법과 원리를 포기한 채 사회주의 이념을 실용적으로 재정립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사회주의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의 기반이었던 사회주의 자체가 아닌 그것에 관한 보수적 사고와 도그마가 소련의 정책을 비생산적 방향으로 오도했다는 재인식이 개혁의 단초를 이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효율적 비인간적 제도와 폐쇄적 정치 과정의 개선으로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범주를 확장하되 사회주의의 기본 가치를 유지하려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평가된다.²³⁾ 1920년대 초의 소련 사회주의야말로 그러한 사회주의상에 부합되는 진정한 사회주의의 모델로 간주되고, 있으나, 60여년 이상에 걸친 왜곡 과정 때문에 부정의와 비효율의 집적체로 전락된 것을, 새로운 정치 경제 질서의 건설과 함께 복원하자는 것이 개혁의 궁극적 목표라고 여겨진다.²⁴⁾ 그런데 오랫동안의 왜곡으로 말미암아 독단적이며 무비판적인 사고, 거대관료제의 경직성, 낮은 생산성과 생활 수준, 폐쇄적 정책결정, 권력의 집중이 심화되어 개혁의 근본 원인 결 장애로 작용한다.

22) Robert G. Sutter, "Changes in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 The Effects on China,"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Summer 1990), pp.33-35. 소련과 중국간의 체제의 차이를 준거로 양국의 개혁 방향이 상이함을 분석한 것으로는 Constance S. Meaney, "Is The Soviet Present China's Future," *World Politics*, Vol. XXXIX, No. 2 (January 1987) 참조. 그러나 중국의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은 정치의 민주화에 주목하여 소련의 개혁 특히 정치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Yan Jiaqi, "A Comparative Study of the Features of the Socialist Political System and Possible Reforms," Mel Gurtov (ed.), *The Transformation of Socialism : Perestroika and Reform in the Soviet Union and China* (Boulder, Colorado : Westview Press, 1990), pp.87-95.

23) Gilbert Rozman, "Shades of Excellence : The Communist Party and Elite in China and Soviet Union," in *ibid.*, pp.155-176.

24) Alexander B. Parkanskiy, "The International Economics of Perestroika," in *ibid.*, pp.219-223.

그런 만큼 사회 전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이 요구되었고, 이 점에서 특정 분야의 개혁은 여타 분야의 개혁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상호관련성을 내포하게 된다.

우선 소위 신사고는 외래의 관념, 관행, 상품에 대하여 소련 정치와 경제의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구시대의 전통지향적 요소와 신시대의 개혁지향적 요소가 자유시장에서 생존경쟁을 벌이도록 유도한다. 이 결과 통치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제도의 개혁 뿐만 아니라 문화의 다원주의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²⁵⁾ 구조의 문제, 즉 중앙집권화와 지방분권화도 상호연관되는 문제여서 중앙집권제 아래 권력과 이익을 독점하던 관료층에게는 지방분권화가 위협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방분권화가 권위주의의 부활을 저지하고 자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대한 관료의 저항에 더하여 개혁지향적 지식인과 관료의 대립이 가중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의 관료조직-당, 군대, 국영기업-은 그 속성에 비추어 사회적 가치와 우선순위의 변화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정치의 비민주화가 진행될수록 당의 비민주적 성격과 거대조직으로서의 국가의 비능률성이 부각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공산당과 그 정부의 정통성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소련의 지배층은 국가의 노선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고 재활성화해야 하는 필요를 회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각국은 정치개혁을 제도화하는 데 상당한 차이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지배층은 정치적 자유경쟁과 의회제 도입의 의사를 결여하고 있는 반면, 소련의 경우 민주화의 진전이 정치체제를 변화시킨 증거가 다양하다는 것에서 확인된다. 예를 들어 1989년 3월의 인민대표회의 선거에서 다수의 당관료와 군인이 낙선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수의 독자적 진보 집단과 정당이 이 회의 기간중 결성되어 향후 소련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에 이른다.²⁶⁾

소련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내사회의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서간 긴장의 완화와 협력의 확대가 필수적 전제로 요구되었다는 점에서, 개혁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상호관련성을 강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래 사회주의 국가들은 내치의 성패 여부가 외교정책의 향배를 좌우한다는 내치결정론적 국제정치관을 견지해 왔다. 즉, 경제, 과학, 기술, 방위 능력과 정치적 도덕적 통합을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이 세계평화의 관건이라고 간주함으로써,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와 밀접한 상호관계는 물론 전자에 의한 후자의 규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²⁷⁾ 이러한 시각은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을 답습한 것으로서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국내정치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불일치에 따르는 계급간 갈등의 상징에 불과하며, 이것의 외부적 표출이 국제정치여서 국제정치 자체는 상부구조의 일부로 관념되어 왔다. 근대민족국가는 자본주의 단계에서의 계급투쟁의 표현이며, 국가는 국내적으로 착취 제도를 유지하고 국제적으로는 자본가 계급의 경제적 팽창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파악되어 왔다.²⁸⁾ 그런데 자본가 계급이 시장 확대를 매개로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간의

25) Feng Shize, "The Trend Toward Pluralism in Chinese Literature," in *ibid.*, pp.111-124 ; Guy Houk, "Soviet Culture and Society Under Gorbachev," in *ibid.*, pp.139-144.

26) Rolf H. W. Theen, "Party-State Relations Under Gorbachev : From Partocracy to Party State?," in *ibid.*, pp.74-76.

27) N. Kapchenko, "Socialist Foreign Policy and the Restructuring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Affairs*, 4 (April 1975), p.3.

28) 이하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의 국제정치관 변화에 관해서는 하용출, "소련에서의 국제관계연구," 『국제정치논총』 28권 1호 (1988), pp.58-59 참조.

내부적 갈등이 전쟁으로 전화된다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주장한다. 이 점에서 군사력의 국내적 활용 형태와 국제적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내부구조라고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자본가 계급간의 일시적 관계가 국제정치라는 전체 아래 이러한 국제정치는 각 국가의 생산력과 분업 관계 등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파악했었다.

레닌은 마르크스의 시각을 계승하여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발전할수록 발전 단계의 불균형과 맞물려 금융자본주의간의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국제정치관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레닌은 현실주의적 지평 위에 서서 외교정책과 국제관계는 소련이 대처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인식하고²⁹⁾ 평화공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균형 등의 관념에 기축을 둔 실용적 국제정치관을 주장했었다. 이 점은 그가 간접적으로 국제정치의 존재와 그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로 여겨지며, 이러한 국제정치관을 최초로 이론화한 정치지도자가 스탈린이었다. 스탈린은 소련과 자본주의국가간의 관계를 투쟁의 관계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레닌과 유사한 관점을 노출하지만, 그의 <일국사회주의론>은 소련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세계혁명의 최종적인 승리와 구분한다. 이로써 국제정치는 계급투쟁이라는 레닌류의 도식에 권력투쟁이라는 관점을 부가한 것이, 국제정치는 단순히 국내계급투쟁의 발산이라는 인식을 탈피하여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동반 관계를 인정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소련과 세계의 운명은 대체로 국제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에 의존한다는 인식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³⁰⁾ 그러나 그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진영-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존재와 그들간의 전쟁의 불가피성을 상정한 양진영이론과, 이것에 기초를 두되 소련 내외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전쟁의 형태를 무력투쟁에서 이념투쟁으로 전환한 평화공존이론이 이들의 국제정치관을 지배해 왔다.³¹⁾

양진영이론과 평화공존이론에 기초한 전통적 국제정치관이 내정개혁의 필요에 따라 수정되어 세계적 국제정치질서의 재편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지만, 동시에 외부 세계의 변화에 관한 인식은 소련 내부의 변화에 기초한다는 파악에³²⁾ 대하여 타당성을 부여해야 할 근거도 된다. 우선, 외적 도전의 가능성을 제거한 가운데 내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 평화와 안정이 소련에게는 절박한 것이어서, 서방의 소련에 대한 공포감을 자극해 온 공격적 외교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련의 국제정치관에 그리하여 국제정치질서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해 온 두 축중에서 양진영이론이 후퇴하고 평화공존이론이 보완된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였다. 개혁이 초래한 이같은 국제정치관의 변화는, 상호관계가 심화된 현대 세계의 경우 국내 분쟁이 지역화·국제화되고 있어서 국제 안정을 위협하며 제국주의 열강이 여타 국가의 내정

29) V.I. Lenin, *Collected Works*, Vol.28, p.151.

30) Kapchenko, *art.cit.*, p.3.

31) 양진영이론과 평화공존이론의 변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V. Kubalkova and A. A. Cruickshank, *Marxism-Leninism and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 Clarendon Press, 1980) ; Allen Lynch, *The Soviet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William Zimmerman, *Soviet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1956-1967*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 신동호, 「소련 외교정책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pp.14-24, 89-94 참조.

32) Jerry F. Hough, "The Evolution in the Soviet World View," *World Politics*, Vol. XXXII, No.4 (July 1980), pp.529-530.

에 간섭한다는 파악을 명분으로 하여, 평화공존 원칙의 엄격한 준수에 기초한 신세계질서의 수립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권의 개혁이 처음부터 민족해방투쟁의 계급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 논리적으로 대립적 또는 투쟁적 국제정치상의 잔존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신정치사고야말로 세계의 전체성과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민족적 차원만이 아닌 세계적 차원의 사고를 요구한다는 주장은,³³⁾ 개혁의 성취를 위하여 소련권이 국제 평화와 안정에 집착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여겨진다.

동시에 개혁 특히 경제성장과 그 질적 변화의 외세의존성은 국제 평화와 안정보다 더 적극적인, 바꾸어 말하자면 상호의존과 협력에 기초한 국제정치상의 정립에 기여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우선 소련·동구간의 밀접한 관계에 비추어 동구의 개혁이 소련의 그것과 보조를 맞추도록 요구하며, 나아가서 경제개혁의 핵심 수단인 과학기술혁명이 구미의 자본과 기술 도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³⁴⁾ 따라서 양진영이론을 조야하게 단순화된 과거의 세계관으로 비판하는 대신 세계적 경제 유대와 상호의존을 강조하는 국제정치상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과거의 폐쇄적 자급자족체제(*autarchy*)는 빈곤화와 몰락의 주범으로 낙인찍히, 자본주의체제와의 건설적 상호작용이 사회주의의 이익으로 간주된 것은 개혁 수단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결과였다. 이 결과 사회주의의 발전은 자본주의와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스탈린주의적 흑백논리로 자본주의의 모든 속성을 부정한 것이 개혁의 장애물로 기능해 왔다는 문제의식은, 사회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최고의 사고와 노동을 수용해야 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진영과의 상호작용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제정치상을 구체화한다. 이처럼 개혁의 실천에 관한 한 서방의 지원은 다방면에서 필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개방이 개혁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을 뿐만 아니라,³⁵⁾ 개혁에 수반된 국제정치질서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소련 등의 사회주의권이 이전보다 더 서방의 영향력 앞에 노출된 것은 필연적 귀결이었다.

국제 평화와 안정 그리고 상호의존과 협력에 바탕을 둔 국제정치권이 새롭게 정립됐어도, 그것이 현실 국제정치에 부합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을 경우 개혁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이 개혁의 성패와 관련하여 국제정치질서의 재구조화를 중요 관건으로 간주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이 경우 소련의 재구조화 구상은, 현재의 국제정치질서가 갈등, 무력충돌, 대결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항구적 평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그것이 철저히 분해되고 수리되어야 한다는 파악에서부터 출발한다.³⁶⁾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의 시각을 빌자면, 제국주의에 의거한 구체제에 저항하여 사회주의가 신체제로 등장한 이래 국제질서의 재구조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권의 개혁 과정에서 그것이 또 다시 제기됐다고 해도 새로운 현상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1980년대 중엽 이후의 그것은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의 이익에 공히 부합되도록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진행될 것을 요구한 점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의 그것과 속성을 달리한다. 즉, 1970년대 중엽의 경우 세력균형이 사회주의진영에 유리한 방향으

33) 크라신, 앞의 논문, pp.285-286.

34) Mel Gurtov, "Introduction : The Transformation of Socialism," in Gurtov (ed.), *op. cit.*, p. 14.

35) Krasin, *op. cit.*, pp.26-28.

36) 크라신, 앞의 논문, p.278.

로 변화하고 있다는 파악에 따라 국제관계의 재구조화를 소련 외교정책의 주요과제로 설정했다.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의 폭력과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 줄 국제구조의 창출을 그 목표로 상정한 것이었으나, 평화·진보 세력과 전쟁·반동 세력간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예상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³⁷⁾ 왜냐하면 이러한 재구조화 구상은 적대적인 양진영의 존재와 그들간의 투쟁 그리고 사회주의의 우월을 전제한 결과, 양진영간의 상호의존 필요를 고려하여 개량주의적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한 근자의 동향과 근본적 상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군사전략과 안보전략도 수정되어, 우세한 무력으로 상대를 압도한다는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포기하고 자신의 방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군사력만을 보유하는 <합리적 충족성>(reasonable sufficiency)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의 안보가 보장되어야 자신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다는 <공동안보>(common security) 전략을 수용한다.³⁸⁾

소련의 개혁 정책에 수반된 국제정치질서의 재구조화 방안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서방의 이해와 협력이 동반되어야 하나, 그렇게 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소련과 더불어 세계질서의 경영을 주도해 온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소련의 개혁이 사회주의로부터의 근본적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소련의 입장 또한 그러한 것인 한 미소간의 대립이 완벽하게 해소될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비록 소련이 진영간 투쟁의 형태를 경쟁과 상호작용으로 환치했다 하더라도, 개혁의 목표가 진정한 사회주의로의 회귀이고 이른바 자본주의진영의 제국주의가 그들이 상정한 신국제정치경제질서와 상치된다고 아직도 주장하는 한, 미국의 소련에 대한 위기의식이 철저히 제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련 및 동구권에서 전개된 사회주의로부터의 이탈은 개혁의 원인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비롯된 우발적 결과로 인식되어, 서방의 소련정책 또한 표류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읽어낼 수 있다. 그리하여 소련의 장래도 확신할 수 없고, 이 결과 소련과의 관계 재정립에 기초한 세계전략과 국제정치질서 재구조화 구상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동조할 경우,³⁹⁾ 소련의 개혁에 지원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미국과 서구의 한계를 간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련이 추구하는 개혁의 성과와 국제정치질서의 재구조화의 관철은 불확실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구질서의 거세와 신질서의 도래가 정착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에서도 동서간의 이해관계가 절충되어, 부분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국제정치질서의 재구조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한 변화의 증거는 우선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 미소간의 협력이 증진되었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걸프전쟁의 해결 방식은 탈냉전의 주요 수단이 군사력에 다름 아니라는 역설을 폭로한 것이지만, 두 초강대국이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협하는 도전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미소간 협조 관계의 강화가 냉전의 종식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외교정책의 수단으로서 군사력이 차지하던 비중이 감소된 것은,

37) Kapchenko, *art. cit.*, pp.5-13. Kapchenko가 제시한 국제관계의 재구조화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유럽의 집단안보체제 창설과 국가간 관계 확대 (2) 식민주의의 종식 (3) 세계사회주의체제와 민족해방세력간의 동맹 강화 (4) 데탕트 (5) 서방진영의 분열 (6) 지역 분쟁과 전쟁의 위험 증가 (7) 국제경제관계 구조의 급속한 변화 (8) 이념투쟁.

38) Padma Desai, *Perestroika in Perspective*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39) 정종욱, "미국의 신화해 정책과 한반도" 『국제문제연구소 논문집』 13 (1989), p.7.

나아가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결부되어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제고된 것은, 국제정치질서를 기왕의 군사화 경향으로부터 탈군사화 경향으로 이끈 중요한 요인이다. 이로써 소련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동구권의 다극화가 촉진되었던 데다가 미국의 서구에 대한 영향력마저 위축되고 유럽 통합의 진전이 덧붙여져 국제정치질서의 다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⁴⁰⁾ 이 점은 주로 사회주의권의 개혁 과정에서 동서간의 상호작용으로 말미암아 국제관계의 긴장이 이완된 결과로서 진영 모두가 상대에 대한 〈共同敵·絶對敵〉 관념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동구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대응까지 중첩되면 다극화의 추세가 더욱 심화된다는 주장에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 즉, 그것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반응은 미국과 서구의 정책적 관심 대상을 중국으로부터 소련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 결과, 중국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에 비례하여 소련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절상시키는 파급효과를 초래한다. 그리하여 중국의 독자노선이 강화되는 반면 미소간의 동반관계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⁴¹⁾ 한편 미소간의 협력 증진, 탈냉전의 가속화, 탈군사화, 다극화로 표상되는 국제정치질서 재편의 배후에 초강대국들의 국내문제에 대한 고려가 작용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소련이 체제 개혁의 절박성으로 말미암아 국제정치질서의 재편 요구를 제기했음은 이미 밝힌 바 있지만, 미국이라고 해서 이와 사정이 판이하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외교정책의 성패가 체제의 사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던 냉전기에는 국제정치적 고려가 국내정치적 그것을 압도했었으나, 냉전의 쇠퇴와 국민복지의 확대 요구는 두 초강대국으로 하여금 지역분쟁에의 개입 자제,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의 축소와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 군축의 가속화에 주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제정치질서의 재구조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소련의 경우 개혁 과정에서 사회체제의 다양한 한계와 요구가 전례없이 폭발되어 국내문제의 해결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개혁의 외세의존성으로 말미암아 그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데 서방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다면, 소련의 국제정치적 위상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세계적 영향력의 감퇴를 배경으로 하여 소련이 간접적으로 국제정치질서의 다극화 추세에 기여하고 있다는 파악 또한 당연하다.

40) 노경수, "1990년대의 초강대국과 한반도 :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함의," 『국제문제연구소 논문집』 14 (1990), pp.56-57.

41) Sutter, *art. cit.*, pp.35-38.

4. 결 론

고르바초프의 집권 이래 가속화된 사회주의권의 개혁이 본래 사회주의로부터의 이탈이 아닌 개량을 목표로 한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최근 급속히 진행된 사회주의로부터의 이탈은 목적론적 결과는 아니라고 파악되나, 그러한 개혁 과정의 여파가 지대하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개혁으로 초래된 정치의 민주화, 경제의 동태화, 문화의 다원화 그 자체는 사회주의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혁은 스탈린주의의 종식에는 성공했으나, 각 국가의 여건에 따라 민주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건설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으며, 이것이 국제정치질서의 재편에 미친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고르바초프에 의하여 시동된 사회주의권의 개혁은 상호의존 관계의 가치를 재인식한 바탕 위에서 추구된 것이어서, 냉전의 이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데다가 그 중간 결과가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이어지자, 사회주의권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되는 변화를 초래하여 2차대전 이후의 양극체제를 다원화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결과 미국만이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음은 겉뜨전을 계기로 재확인된 것이려니와 또한 그것은 국제정치질서의 재구조화 방향과 관련하여 중대한 함의를 내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도 냉전의 이완으로 말미암은 군사력의 효용 감소와 제반 국내문제-특히 경제문제-로 말미암아 국제정치적 역할이 점차 제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력의 상대적 하강 추세 또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권의 개혁 이후 국제정치질서는 당분간 一極下多極體制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유럽의 통합, 일본의 정치강대국화, 중국의 독자노선이 구체화되면 다극화의 방향으로 점차 재구조화될 것이라고 여겨진다.